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분노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순 원
소설가

늘 하던 일도 어떤 때는 참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칼럼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선박의 안전운행이라든가 해상사고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가안전이니, 재난방지니, 안전보장시스템이니 하는 것들을 거론하기 이전 우리사회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오랜 기간동안 마치 무르익히기라도 하듯 준비해온 가장 '한국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기 얼마 전 이런 농담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직감적으로 테러인가를 떠올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인가를 떠올리며, 한국은 부실공사인가를 떠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래전 성수대교가 그랬고, 삼풍백화점이 그랬으며, 가깝게는 경주리조트 참사가 그랬습니다.

그냥 농담으로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자조적이고 씁쓰레하기 짝이 없는 이 삼국의 비교를 경주리조트참사 무렵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저 씁쓰레한 농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미국은 여전히 테러를 떠올리고 일본은 지진을 떠올리는데, 한국은 건물이든 배든 비행기든 도로에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나면 한국인가를 떠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역시 그렇지요.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정적인 사고 원인만도 열 가지가 넘지요.

선장이 어떻게 했으면, 승무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해운회사가 어떻게 했으면, 화물을 어떻게 했으면, 평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관리감독기관이 어떻게 했으면, 정부가 인허가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열 가지도 넘는 사고원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잡혀 있었다면 참사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바로 잡혀 있는 것이 없었던 거지요. 모든 것이 '늘 해왔던 대로'였습니다. 정부도 국민안전이야 어찌되든 늘 해왔던 대로 기업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물배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관리기관도 늘 해왔던 대로 업주와 한통속으로 고물배의 증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회사 역시 늘 해왔던 대로 이윤만 앞세워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선장과 승무원 역시 늘 해왔던 대로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던 거지요.

누군가 '한국적인 사고'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일이나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없이도 건물에서도, 배에서도, 비행기에서도, 도로와 전철에서도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 대형사고는 늘 있어왔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만 그때그때 자신의 불운으로 그 사고에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똑 같은 방식으로 터지는 걸까요. 국가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방비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나라의 주인으로 국민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이제까지 사고 때마다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니까, 나와 내 가족은 운 좋게 그 사고에서 벗어나고 피했으니까, 국민들 역시 늘 해왔던 대로 그걸 남의 일처럼 여겨왔던 것이지요.

성수대교 붕괴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분노했더라면 뒤이어 일어난 삼풍 사고와 씨랜드 사고, 그리고 얼마 전 경주리조트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21년 전 292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서해페리호 사고 때 역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며 가슴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온갖 부정과 부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했다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방송도, 신문도 치유라는 말 함부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아니라 우리 삶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 듯 제대로 분노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늘 해왔던 대로 분노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터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고에 다음 차례로 나와 내 가족이 선택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입니다.

의료 칼럼

운동하다 치아가 다친다면

김 수 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축구나 농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넘어지든 부딪치든 구강에서 가장 튀어나온 구조인 '앞니'는 코와 함께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이다. 운동을 하다가 치아가 다쳤을 때, 과연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 의외로 모르는 이들이 많다.

앞니가 다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인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치아는 멀쩡한 데 주변 지지조직이 다쳐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예 잇몸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범위가 달라진다. 심하게 부러져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응급적으로 노출된 신경을 덮어 통증을 줄여주는 처치를 한 뒤, 추후 완전한 신경치료후 보철물을 씌워주는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 만일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많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면 치아의 색조와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파절된 부위만 떼우거나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충격을 받은 치아는 많이 흔들리며, 원래 치아 배열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잇몸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 흔들리는 치아는 건드릴 때마다 심한 통증을 유발할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에 의해 치아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외상을 '탈구'라고 한다. 응급실에서 만나는 치아 탈구의 사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구기 운동 도중에 친구의 머리나 단단한 물체에 위턱을 부딪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잇몸 밖에서 이탈해 운동장 바닥 등 더러운 장소에 떨어진 치아를 보면 환자도 보호자도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경황이 없더라도 치아를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오지는 말자. 다행스럽게도 탈구가 발생한 지 1시간 이내의 치아라면 대개 재식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치아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그냥 손에 들고 오거나 마른 휴지에 치아를 싸 오는 방법은 한 번 죽은 치아를 두 번 죽이는 길이다. 재식해야 할 치아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답시고 빳빳한 칫솔 등으로 치아 표면을 문질러 닦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치아의 뿌리는 '치주인대'란 얇은 막으로 덮여 있고, 치주인대가 남아 있어야 성공적인 재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빠진 치아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가볍게 씻기만 한 뒤 바로 찬 우유에 넣어 오거나 식염수에 담아 오면 된다.

응급실로 가져온 치아는 원래 배열대로 맞춘 뒤 치과용 재료와 철사를 이용해 일종의 '깁스'를 하게 된다. 치아의 깁스는 최소 2주간 유지되는데 그 동안 치아와 잇몸 뼈가 잘 붙기 위해서는 교합력이 작용하거나 빠졌던 치아에 힘이 가해지면 안 된다.

앞니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끊어먹기는 금물이다. 그 후 경과를 지켜봐서 증상이 생기거나 치수의 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잇따라야 한다. 탈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폭력, 추락 등이 치아 외상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다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덴탈 아이큐가 많이 높아진 요즘 세상,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자.

기 고

잔인한 4월의 슬픔이 너무나 무겁다

박 정 필
시인·수필가

진도 팽목항에서 사고해역을 향해 애끊는 심정으로 기도한 보람도 없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찾아낸 자식의 시신을 안고 망연자실한 부모들의 모습을 차마 맨정신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는 밤이다. 온 국민이 슬픔에 휩싸여 있는 지금 죄인처럼 마음이 무겁다. 내 자식이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가슴 한편에 배어든다.

사실상 세월호의 비극은 예고된 인재였다. 바로 눈앞에서 다 키운 청춘남녀들을 수중 고혼으로 만들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어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학생들한테 구명동의를 입혀 선실 밖 갑판에서 대기시켰다가 배가 침몰할 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외쳤더라면, 인근 민간인 배들에 의해 구조되어 이처럼 끔찍한 대형 참사는 막았을 것이다. 애지중지 기른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을 죽게 한 무능한 뱃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 누군들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 부모들은 죽는 날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잔인한 4월의 슬픈 무게에 분노와 고통을 넘어 어딘가에 화풀이하고 싶은 감정도 생겨 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환난상휼의 전통정신으로 유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선주 유 씨는 수천억대의 재산가임에도 선원들 처우에는 인색했다. 그는 70살 노인을 1년 계약직 선장으로 채용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위기의식도 없었고 제대로 상황판단을 못했으며, 탑승객 보호의무도 포기한 채 가장 먼저 탈출했다. 15명의 선원도 마찬가지였다. 선장만 제대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더욱 원통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안전사고가 2년도 안 돼 세 번째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훈련 사설캠프사고와 올 초 대학생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엔 단원고생 수학여행사고다. 아무리 큰 사고가 있었어도 몇 달만 지나면 언제 그런 불행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집단망각을 하게 된다.

해경도 화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신고를 받고도 느슨하게 초기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해난사고에는 완급, 경중, 선후를 잘 판단해 순발력 있게 처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참사에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질책을 받는 걸 보면 안타깝다.

이 와중에도 희생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졌다. 몇몇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면서 그들에게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보수논객 지만원의 글을 보면 등골이 서늘하다. 그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올린 궤변수준의 글 내용은 이렇다.

"시체 장사를, 한두 번 당해봤는가" "제 2의 광주폭동이, 반드시 일어난다."며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하라"고 조언까지 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가 궤변전문가 인지, 사이비 안보전문가 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이런 망측한 자와 이 땅에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되레 정부를 욕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누구든 애족정신이 없는 자가 애국심이 있는 건 위선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말씀을 전해 드린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넋 나간 안전행정부 얼빠진 공무원들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피해가 예상보다 커진 것은 미숙한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과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구멍이 뚫린 탓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일 안정행정부와 구조기관들의 무사안일한 근무 행태가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전남도 고위간부들을 현장까지 데려다달라는 전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전남도청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헬기는 이로 인해 40여분 정도면 가능한 거리를 1시간7분여 만에 도착했고, 현장 투입은커녕 전국에서 모여든 17대의 헬기와 함께 팽목항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20여 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또 사고 당일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 '화랑·충무 훈련 대책을 논의하자'며 전남도와 광주시, 제주도의 안전·재난 담당 간부공무원을 서울로 불러들여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었다. 몇몇 자치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예감하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초동 지원에 전력해야 할 3개 시·도 안전·재난 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이날 하루종일 자리를 비운 채 서울에 머무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셈이다. 특히 안전 책임 부처인 안행부의 행태를 보면 정책 우선 순위에서 재난안전 관리가 뒷전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향후 진행될 재난대응체계 재정비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정부 사고 인근 등대 유인화 묵살, 화 키워

〈有人化〉

진도 조도 어민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과 가까운 섬에 등대 유인화(有人化) 사업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진도 맹골수도에서 2㎞ 내에 있는 무인 등대를 직원들이 상주하는 유인 등대로 바꿨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9년 맹골수도 옆 맹골도리 소재 죽도등대를 유인 등대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에 어민들은 맹골수도 인근이 해난사고가 많은 곳인 만큼 다시 유인화 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수부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와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1월 17일 회신문을 통해 '등대지기 출·퇴근이 힘들고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무인화 이전 죽도등대에는 등대장과 직원 3명 등 4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등대 관리는 물론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맹골수도는 조도면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 해역으로 하루에 여객선과 화물선 등 수백 척이 통과하는 길목인데다 물살이 거세 해난사고가 잦은 곳이다. 이곳 해상에선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58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어민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했다.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국가 예산은 사고 예방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 수칙이 아닌가. 직원들이 상주해 있었다면 세월호의 항로 이탈 등 조기 이상 징후를 감지해 구조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펼쳐졌을 것이란 주장을 해수부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장 해수부는 참사 수습과 함께 유인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탁상행정에 의한 안전불감증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르게 된다.

無 等 鼓

생때같은 자식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다. 슬픔이 큰 만큼 애도의 글도 넘쳐난다. 그런 글들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으니 '생때'다.

한데 유감인 것은 '생때'를 '생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적잖다는 것이다.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찮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차제에 정확한 뜻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생떼'부터 보자면 '억지로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을 말한다. "장쇠는 당장 종문서 따윈 필요 없으니 땅을 떼어 달라고 생떼라도 쓰고 싶었지만…."(문순태 '타오르는 강')

다음 '생때'를 보자. "생때같은 목숨도 하루아침에 간데없는 세상에 물건들의 목숨은 왜 그렇게 질긴지. 물건들이 미운 건 아마 그 질김 때문일 거예요."(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생때의 원래 뜻은 '평상시 건강하고 무탈하다'는 것. "늙은 부모 공양하고 생때같은 자식들 안 굶기자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자식 된 도리고 부모 된 도립니다."(송기숙 '암태도')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현진건 '운수 좋은 날')

생때라는 말은 '살아있는 푸르면서 싱싱한 대나무'를 뜻하는 '생대'(生+대)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일제시대에 나온 '조선어 사전'(문세영)만 해도 '생대같다'의 형태로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57년 '한글학회 큰사전'부터는 '생때같다'로 표제어가 바뀐다.

싱싱한 대나무처럼 건장했던 피붙이가 하루아침에 저세상으로 가고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 따라서 '생때같은'이란 표현은 건강했던 자식이 먼저 저세상으로 갔을 때 쓰는 것이지 병든 자식이 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때같은 자식들 시신이라도 찾아달라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팽목항에서 울부짖고 있다. 한데 어느 재벌 정치인의 아들은 이들을 향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글을 남겨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온실 속에서만 자랐을 그의 눈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생떼나 쓰는 것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철딱서니 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